

토종 '골드키위' 나왔다

전남도 농기원팀 13년만에 '해금' 개발

뉴질랜드산 대체로 열티 절감 기대

뉴질랜드산 '골드키위'(과육이 노란 참다래)를 대체할 수 있는 토종 '골드키위' 신품종(사진)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난지 과수시험장 조율섭 연구팀은 13년간의 연구끝에 신품종 골드키위 '해금'을 개발, 최근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 출원했다. 이번에 개발된 '해금'은 과육이 노랗고 당도 13.7도, 과실무게 100g이다.

특히 외국 품종에 비해 품질이 뛰어난데다 보관과 포장이 손쉬워 농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전남 농가에서 '골드키위'를 재배할 경우 로열티 절감 등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다"고 말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해남 등 3농가 1천여평에서 시범 재배를 실시한 뒤, '해금' 품종을 대량 증식해 일반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에서는 해남과 영암, 고흥, 보성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천 500여 농가가 465ha(전국의 55%)에서 연간 4천여t의 참다래를 생산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배 인공수분 바쁜 일손

꽃기루가 저기에 펼리고 있다"며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실공사 추방·신뢰행정
해남군 올해도 기동감찰

해남군이 지난해 이어 올해 부실공사 추방과 신뢰 받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기동감찰을 실시한다.

해남군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추진공정 30%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20개 사업장을 무작위 선정, 작공에서부터 체계적인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공사계획과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및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비롯해 현장배치·건설기술자의 근무실태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감찰이 실시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기동감찰을 벌여 10건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했으며, 13건은 보완시공을 지시한 바 있다.

/해남=박정국기자 jopark@



'밤 까는 기계' 첫 시연회

보성서... 수작업보다 40% 원가절감

밤 껍질을 한꺼번에 벗길 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국내 처음으로 개발돼 농가 및 밤 가공공장의 일손을 덜어주게 됐다.

(주)자연과 사람들(대표이사 김정현)은 지난 8일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공장에서 관계자와 농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 밤 탈피 기계 시연회'를 가졌다.

(사진) 밤 탈피기계는 밀폐된 공간에 스티瑕을 공급, 고온·고압 상태를 유지하면서 밤의 내부는

도와 압력을 상승시킨 후 저온·저압 상태인 외부 공간으로 배출

시키면 밤 껍질이 분리되는 원리를 이용해 개발됐다.

이 기계는 손실없이 껍질을 벗

길 수 있어 원료 회수율이 기존 45~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75~80%에 달한다. 또 수작업에 비해 생산원수가 30~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국내 밤 가공공장에서는 생산원수가 상승과 제품출하 기밀을 맞추기 어려워 중국에 입가공을 의뢰해 왔다.

김정현 대표는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자동화에 성공했다"며 "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 생산원가와 인건비가 절감돼 밤 수출시장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61-858-8048)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강진군 "FTA파고 넘자" 대책반 구성

원예·축산분야 등 4개반 대응전략 수립키로

강진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예분야 대책반을 구성했다.

군은 최근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과 식량작물반, 원예특작반, 축산반 등 4개반 16명의 FTA 대책반을 편성했다. 대책반은 FTA농업분야 체결내용과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위기진단과 함께 분야별 실전 가능한 대응전략 수립에 나선다.

또 기업농과 수출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틈새농업 개발, 농업 및 축산시설 현대화 등 세부 실천계획을 지역에 맞게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축산분야는 고급 브랜드 육성과 조사료 공장건립, 생산과 도축, 가공에 이르는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수출에 국한되고 있는 파프리카의 대미 시장진출과 1억원 이상 고

소득 농업인 100명 배출 프로젝트 등도 주요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군은 매주 현지에 이상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지원 계획을 지역농업에 골고루 접목시키며 공무원과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설명회 등도 수시로 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경쟁력 확보만이 FTA 파고를 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이다"며 "농업인과 행정이 하나가 돼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감사원, 영광굴비 '상표권 승인' 조사

롯됐다.

S식품과 경쟁하는 모업체는 '강군' 수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상표권 사용승인을 해줬다'며 반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 관계자는 9일 "감사원 민원 조사팀이 굴비 상표권 사용승인 과정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밝혀왔다"고 말했다.

영광굴비

상표권 승인 논란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미국에서 영광굴비 직판행사 기간 중 S식품에 영광굴비 상표권 사용을 승락한데서 비롯됐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선사시대 고인돌 문화 체험해보세요"

26일부터 4일간 화순 고인돌 축제

음악 공연 등 다채·마라톤 대회도

화순 고인돌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화순군 춘양면과 도곡면 일대 고인돌공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26일에는 어린이 인형극과 마임 공연, 선사인 체험, 열린음악회, 국악한마당이, 27일에는 민속경연 대회, 평양에 슬단 공연, 원시제 사장 집전제, 군민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28일에는 어린이 마당극과 남사당께 공연, 타악 퍼포먼스, 고인돌 축제 재현, 현대무용, 고인돌문화통일 음악회가 마련된다.

29일에는 마술 공연, 한천 농악, 고인돌 축제 재현,

솟대 만들기, 로컬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특히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선사시대 역사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지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순 고인돌공원은 596기의 고인돌이 밀집해 있는데다 채석장까지 발굴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축제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제 6회 화순 고인돌 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 코스는 간강(5km)·단족(10km)·하프 코스 등 3개 부문이며, 참가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oindolmarathon.c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61-374-0343)

/화순=조성수기자 css@



벌교역 앞 관광안내소 개소

개소로 벌교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통정보 및 관광 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됐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아직도 염색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5분 이면 염색 끝!! 혼자서 염색하세요!!

오디코디 ODI-CODI

암모니아가 들어있지 않아 역한 냄새 無

샴푸타입 초간편 천연 염모제 ■ 세차미리 진동 식물성 염모제

천연 뿐만 아니라 80% 이상 함유한 자연칼라 염색제의 새로운 혁명!!

염색 후에도 모발탄력과 윤기가 난다

샴푸타입 초간편 천연 염모제 ■ 세차미리 진동 식물성 염모제

오디코디만의 특별한 염색

독하고 역겨운 냄새 NO! 모발 손상 NO!

피부, 인자, 저자극 천연성 YES!

대리점 모집

무점포 사업자 모집

소비자가 : ₩15,000(택배기준)
계약번호 : 013-107-306199

(주)경망네츄럴 호남판판

T.383-0653, H.011-626-114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6-328) www.kbodiocodi.co.kr

베스트부동산 중개(주)

T.062-655-1178

평동 공단 대로변

1층 상가 및 임대 2·층 사무실 임대

3층 60평 1억 2천만

2층 80평 2억 2천만

1층 80평 4억원

위치 : 평동공단

주 집입로 대로변

임대금액, 보증금, 월세

상담 후 결정

각 층 부분별 분할

임대 가능합니다

대지부동산

T.062-371-2440

011-627-3003

임야, 목장, 아파트 전원주택 전문

남구 승촌동 주거지역 900평 도로

접 풍정, 물류창고지역 26평

서구 매월동 지나면지역 470평 당

140평 도로변

동구 내남동 주거지역 1000평 당

70평 도로변

남구 대촌동 LPG 충전소 허가

부구 지야동 대로변 130평 도로변

당구 단원동 15평 도로변